The 11th Busan International Video Art Festival

제 11회 부산국제 비디오아트 페스티발

The 11th Busan International Video Art Festival

제 11회 부산국제 비디오아트 페스티발

The 11th Busan International Video Art Festival

주 최
부산국제 비디오아트 페스티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김성연
사무국장 정만영
영상기술 이광기
심사위원 심준섭(경성대 교수), 김만석(미술비평가), 김성연(독립 큐레이터)

후 원
부산문화재단, 비온후, 데자뷰영상, 부산가톨릭센터, 또따또가
특별초청
(사단법인)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NeMaf)
마드리드국제비디오아트하우스(International Video Art House Madred, IVAHM. 스페인)

Organizer
Busan International Video Art Festival Commitee

Operating Director Kim, Seong-youn
General manager Jung, Man-young
Technician Lee, Kwang-kee
Selection Commitee Sim Jun-seob, Kim Man-seok, Kim, Seong-youn

Support
Busan Art Foundation, Beonwho, Deja vu Video, Busan Catholic Center, Totatoga
Special Guest
iGong, NeMaf, International Video Art House Madred-IVAHM-Spain

busanvideo@gmail.com
www.busanvideo.com

제 11회 부산국제 비디오아트 페스티발

2014. 12. 12 - 27

SCREENING 2014.12.12

Screening and Talking with Artist	개막상영 및 작가와의 대화
12. Dec. 2014(Fri)	12월 12일(금)
Busan Catholic Center	부산 가톨릭센터
Art Theater C+C	소극장 아트씨어터 씨엔씨

Screening Schedule	개막상영 일정
4:00pm	오후 4시
Opening	개막
4:10pm - 4:55pm	4시10분 - 4시55분
Korean Video Collection	국내 주제전
(The body-attached immaterial space)	(신체에 접속된 비물질 공간전)
5:00pm - 5:30pm	5시 - 5시30분
Talking with iGong	아이공 초청 토론
5:30pm - 6:25pm	5시30분 - 6시25분
IVAHM Spain Video Special	스페인 비디오 특별전
6:30pm - 7:40pm	6시30분 - 7시40분
Selected Korean Artists in Competition	국내 경쟁작
7:40pm - 8:00pm	7시40분 - 8시
Talking with Artist	작가와의 대화

Exhibition Schedule	전시일정
12. Dec. 2014 - 27. Dec. 2014	12월 12일 - 12월 27일
11:00am - 7:00pm	오전 11시 - 오후 7시
Busan Catholic Center	부산 가톨릭센터
Little Theater Lobbygallery	소극장 로비갤러리

제11회 부산국제비디오아트 페스티발

김성연

동시대 미술에서 영상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시 등을 통해 소개되는 영상작품의 비중을 보더라도 오늘날 현대미술에서 차지하는 영상미술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나 상업 영상분야의 규모가 커지는 것과 달리 순수 예술로서의 영상은 분야의 제반 여건이 그리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의 경우는 더욱 열악하여, 이 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과 함께 상업적 결과로 연결되기가 힘든 분야로 여겨지면서 미술대학에서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젊은 작가의 관심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해 2004년 대안공간 반디에서 시작한 부산국제비디오아트페스티발이 올해로 11회를 맞았습니다. 처음 국내 작가의 공모로 시작하여 국제전으로 확장되었고, 그 명칭도 '국제'와 '아트'가 추가되면서 현재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번 년도에는 그동안과 다른 몇 가지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2000년부터 국내 대안영상문화발전을 위해 활동해온 〈아이공(iGong)〉을 특별 초청하였는데,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꺼이 함께해주신 김장연호 대표께 감사드리고, 우리 행사와 관계를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 해에는 처음으로 부산의 원도심인 중구에 위치한 부산가톨릭센터에서 상영,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영화를 비롯한 많은 예술/문화의 중심이었던 중구에서 해운대 지역으로 옮겨간 상황에서 이 행사가 원도심으로 다시 옮겨와 진행된다는 것도 지역으로서는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해되어온 부산국제비디오아트 페스티발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e 11th Busan International Video Art Festival

Kim Seong-youn

Video art occupies a significant part of contemporary arts. As the increasing number of video works that are displayed in massive exhibitions proves its growth, we can see its importance in contemporary art. However, unlike the increasing size of industrial films, the general condition for video art as pure art is not improving. It is worse in outside of Seoul. Not only is there a lack of experts, but video art is also regarded as a field that is difficult to connect to industrial results. Thus, both young artists and art schools have little interest in this field.

In such a situation, Busan International Video Art Festival that Bandee (an alternative organization for art) started in 2004 to give help to the field, has come to hold its 11th event this year. At first, it received only applications from domestic artists, but has expanded into an international event. Following this development, the words 'international' and 'art's were added into its official name.

This year, there are a few changes to the event. First, i-Gong, which launched to work for the development of an alternative video culture of Korea in 2000, was invited for a special show. I expect that this will be a chance in which the activities of i-Gong are introduced and participants share opin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video art. I am grateful to KimJang, Jen Yeno, director of the organization, who is readily joining in. In addition, I am pleased that our festival has come to be involved with i-Gong.

And for the first time, this festival is being held at the Busan Catholic Center in Jung-gu, Busan. In a climate in which the main locations of many art and culture events have moved from Jung-gu to Haeundae-gu, it is also a meaningful attempt for this festival to be carried out in the old downtown area of Jung-gu.

I request you to have great interest in and love for the Busan International Video Art Festival, which is being held as a local event under difficult conditions.

‘사운드—비디오’와 평등의 감각

미술비평가
김만석

올해 비디오 페스티벌에 공모된 작업들에는 예전과 달리 ‘사운드’를 예민하게 다루려는 경향들이 많았다. 사운드를 화면 내부에 고착화하려는 저간의 이미지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사운드와 영상 이미지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디지털 체제에서 사운드 정보가 이미지와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해도, 사운드는 이미지 안으로 완전히 회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사운드를 다루는 경향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은 비디오를 서로 다른 세계의 ‘결절점’(node)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나는 것이며 비디오를 다른 세계의 분기점으로 파악하려는 방식으로 채택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가령, 배경 이미지가 등장하고 그 위로 사운드가 흘러나올 때, 그 사운드는 어디에서 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까? 비디오에서 나타나는 사운드는 화면 내부에서 출현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도입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사운드는 이미지의 운명과 끝을 무조건 함께 하지 않는 독립적인 형식을 지닐 수도 있게 된다. 물론 사운드와 이미지 사이에 선후의 관계가 있거나 우열의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비디오가 사운드에 더 관심을 기울일 때, 화면과 사운드 사이의 불일치가 이 양자 사이의 일반적인 위계를 방해하거나 흐트러뜨린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비디오 작업에 영상 이미지 정보만이 아니라 서로 동일하게 치환될 수 없는 정보 즉 사운드를 담아내고자 함으로써, 비디오에 대한 감각을 지배적 영상정보만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일반화된 시각 체제의 위계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른 바 ‘평등의 비디오’에 대한 감각들이 성숙하

고 있다고 할까? 사회적 불평등성이 가시적으로 단단하게 고착화되어 있을 때, 예술이 특권화된 전통적 미디어를 통해서 그것에 개입하고 비판해왔다면, 그 불평등성이 훨씬 유연하게 삶 전체에 확장되어 있을 때, 비디오는 혼종적인 세계들을 흡수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평등의 가능성을 질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유연한 세계와 그 세계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시공간적 조건은 그만큼 유연한 미디어를 통해서 현실 세계가 도착하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열망을 비디오의 열린 매체적 조건을 통해서 수행하려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비디오 작업이 역사적으로 완결되었다고 믿기 어렵게 만드는 조건이기도 하다. 아니, '평등'이 불가능한 꿈이고 그것이 오직 도착해야 할 무엇이라면, 비디오의 가능성은 바로 그 불가능성을 도착하게 하려는 모험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많은 응모작의 수는 (여러 다양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바로 비디오에 내재된 이러한 힘들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비디오는 미래적인 감각을 도입하는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만화가 다양한 예술적 원리와 미디어를 통해서 진화하고 있는 것처럼, 비디오 역시 그러한 방식으로 진전하는 매체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아직 오지 않은 세계나 와야 할 세계에 대한 급진적(radical)이고 근본적인(radical) 노력들이 비디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비디오 작업을 통해서 세계에 대한 '다양한 스케이프'('—scape')를 만나게 될 것이고 미래의 길을 아주 조금씩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등의 비디오를 창안하는 모든 예술가들에게 미래를!

Selected Korean Artists in Competition

국내경쟁작

남예지 Nam, yeji

도미노 Domino

백정기 Baek, JungKi

서평주 Seo, Pyoungjoo

윤석원 Yoon, Suok-won

윤자영 Yoon, Jayoung

이은희 Lee, EunHee

이지선 Lee, JiSun

임민영 Im, Minyung

정혜정 Jung, Hae-j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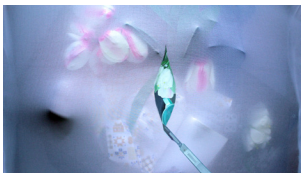
허희규 Heo, Heegy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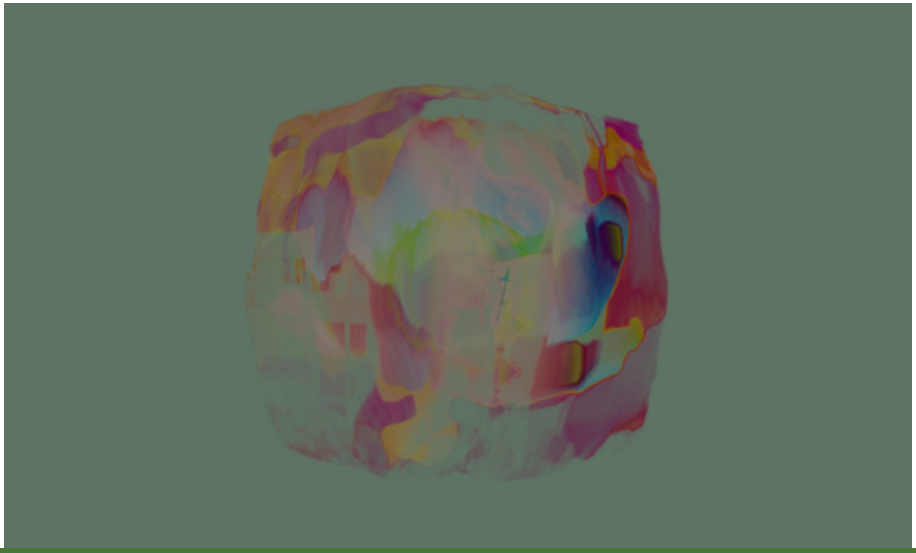
Memory

남예지 Nam, yeji | Memory | 2min. | 2014

사람은 기억의 어떠한 연쇄작용을 통해 옛 기억들을 수면 위로 끌어 올린다. 그 연쇄작용의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게도 특정 기억과 연관된 특정한 무언가(소리, 오브제, 냄새, 온도 등)이다. 이 영상에 등장하는 오브제들은 이러한 시점에서, 특히나 나의 아주 사적이며 부정적인 기억들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기억들은 나의 작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이러한 매개체들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행위들로 나의 작업과정을 영상으로 표현해보고 싶었다.

A humanbeing draws up old memories to the surface through a chain reaction of memory. The trigger of this chain reaction is something (sound, objects, smell, temperature, and so on) that is associated with a certain memory. In this regard, the objects in the film act as the media of my personal and negative memories, and the memories are very closely related with my work. I wanted to express the process of my work with the actions conducted with these me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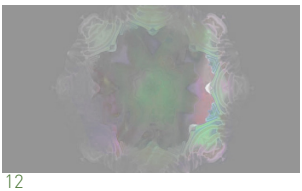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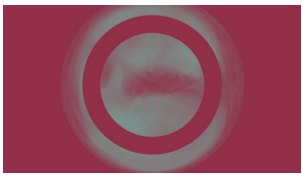
연꽃

도미노 Domino | Lotus Blossom | 5min. 55sec. | 2013

연꽃을 보고 있으면 언제나 아름다운 것은 더럽고 추한 것을 밑거름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자연계의 이해하기 어려운 이치를 발견하게 된다. 결국 미(beauty)는 악(evil)에 의해서 탄생하게 되고 다시 악(evil)은 미(beauty)에서 탄생하게 되니 서로 부모이자 자식이 되는 경우로 배타적이면서 의존적이고 보완적이지만 소모적이기도 하다. 작품 'lotus blossom'은 이런 모순적인 통합에서 발생하는 미와 추의 불규칙한 변화를 '남녀의 성행위'라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풀어내고자 한다.

While looking at a lotus flower, I find the difficult principle of nature that beauty always uses dirty and ugly things as its basis. Eventually, beauty is born from evil and evil is born from beauty. Thus, both of them are a parent or a child to each other. And they are exclusive to each other and dependent on each other. They also supplement each other and consume each other. The film 'Lotus Blossom' tries to disclose the irregular changes in beauty and ugliness produced in such a contradictory integration, through symbolic actsduringsex between a man and a wo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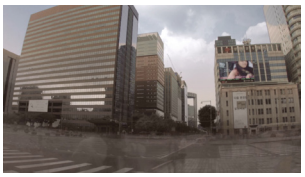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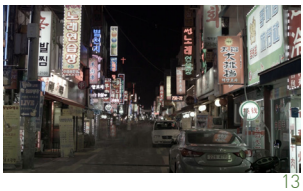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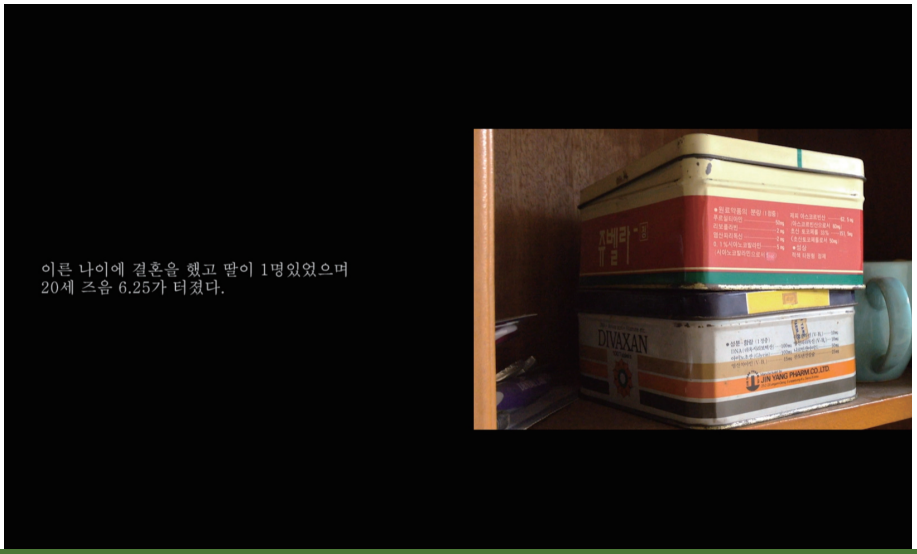
조용한 도시

백정기 Baek, JungKi | The Palimpsests Of The City | 5min. 13sec. | 2014

1년 동안 섬에 살았다. 섬은 조용해서 많은 소리가 들린다. 삐그덕 삐그덕, 괴상한 소리를 내는 새소리, 여름 포도 밭 속에서 비 내리는 소리, 동네 개들이 발자국 소리에 미친 듯이 짖어대는 소리. 반면, 도시는 밤에도 침묵하지 않는다. 자동차와 잡다한 소음으로 가득하다. 침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극장으로 들어가거나 교외로 빠져나가야 한다. 어찌되었든 침묵을 누리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 〈The Palimpsest Of The City〉시리즈는 도시에서 자동차와 군중을 지우는 영상 작업이다. 영상을 투명하게 만든 후, 여러 번 어긋나게 중첩시켜서 움직이는 물체를 지워나갔다. 지워진 사람과 자동차는 화면에 깊은 톤을 남기고 공중분해 된다. 나는 이러한 현상을 구름cloud과 군중crowd에서 이름을 빌려와 CLOWD라고 이름 지었다.

I have lived on an island for one year. The island is so quiet that I can hear many sounds: creakiness, awkward birdsongs,the sound of rain in a vineyard in the summer, and dogs madly barking at a person's footsteps in the village. On the contrary, the city is not silent even at night. It is full of the noises of cars and people. To feel quietness, you must go to a theater or drive to the suburb. Wherever you go to be in silence, it costs a lot. The series, "The Palimpsest Of The City," areworks for which I removedthe images of cars and people in the city. After making images transparent, I removed moving objects by roughly overlapping them several times. The deleted people and vehicles are decomposed, leaving deep tones in the screen. I call this effect 'CLOWD'by mixing the words 'cloud' and 'crowd.'



증언 접점 기록

서평주 Seo, pyoungjoo | Testimony Agreement Record | 5min. 47sec. | 2014

이 영상은 할아버지의 개인사에 관한 것이다. 할아버지의 증언과 한국 근현대사와의 접점, 그리고 그것의 기록이다. 할아버지는 1931년생으로 일제시대, 해방, 한국 전쟁, 독재를 거쳐 현재에 이르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작년 할아버지가 아프면서 '뇌선'이란 두통약을 약 3,40년간 드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개인사에 대해 궁금함을 가졌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해방직후 부산에 오면서부터 시작된다. 나는 개개인의 역사에 한국근현대사가 끼친 영향에 대해서, 그 접점들에 대해서 집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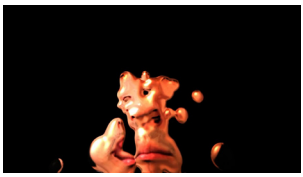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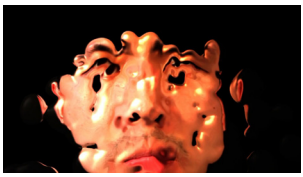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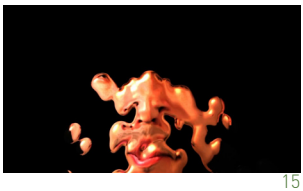
The video is about the personal history of my grandfather. It records his testimony over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He was born in 1931 and until today has gone through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liberation from Japanese imperialism, the Korean War, and a military dictatorship. Last year, when I heard that after he had become ill and that he had taken headache pills called 'Neu Sun' for about 40 years, I came to be curious about his personal history. His story started from when he came to Busan soon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 For this work, I focused on the effect of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on individual histories and on the historic events that were peaks in this history.

삶의 보편적 타당성은 의미와 무의미 사이의 차이 속에서 만들어져 왔다.

윤석원 Yoon, Suok-won | Life's universal validity has been made in the gap between meaning and meaningfulness. | 5min. 59sec. | 2014

유학 생활 동안 느낀 외로움 속에서 발견한 것은 의미와 무의미를 향한 내 삶의 무게였다. 보는 것, 듣는 것,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은 내면과 외면의 갈등의 씨앗이 되었고 현실과 이상의 관계가 맺어지는 시발점이 되기도 하였다.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는 홀로 남은 텅 빈 내 방에서 살며시 날 향해 비춰고 있는 거울 속 내 자신의 얼굴은 내 삶의 지극한 보편적 이유를 묻는다.

What I found from my loneliness while staying abroad was the weight of my life toward meaning and meaninglessness. All what I saw, heard, and experienced came to beseeds of the conflict between my inner and outer selves, and the starting point where the relation between my reality and ideal was formed. No one consoling me, I look into the mirror in my room alone, and my face in the mirror asks about the very universal reason for my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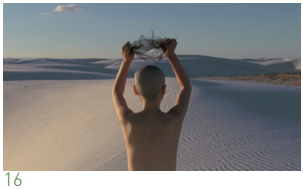




생각의 면류관

윤자영 Yoon, Jayoung | Crown of Thoughts | 10min. | 2014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면이 나온다. 면류관의 가시로 인해 머리의 살이 찢기는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피를 흘린 것이라고 기독교에서는 얘기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고통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고 한다. 마음의 본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고요히 그 마음을 바라보고, 경험해야 한다고 말한다. 작가는 삭발한 머리카락으로 고통의 근원인 마음을 상징하는 가시면류관 조형물을 만들었다. 영상은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시 면류관을 견디고, 벗어버리로, 떠나보내는 과정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사막은 종종 방황, 영적인 갈구, 정화 그리고 구원을 상징하며, 흰색은 재탄생, 재생, 비움, 그리고 깨끗해짐을 상징하기 때문에 미국 뉴멕시코의 화이트 샌드 네셔널 모뉴먼트를 배경으로 필름을 제작했다.

The Bible has a story in which Jesus died on the cross wearing a crown of thorns. He suffered pain as his head was torn by the crown of thorns. Christianity explains that he shed blood on the cross wearing the crown of thorns to redeem us from sin. And Buddhism explains that our pain comes from our heart, so that we must calmly look into our heart and experience it to realize its nature. With my hair, I created a crown that symbolizes the crown of thorn and the heart that is the source of pain. The film shows that I purify my heart through a process in which I endure a crown of thorns, take it off, and send it away. There are two important reasons that I shot the film at the national monument in White Sand, New Mexico, US. The first reason is because the desert often symbolizes losing one's way, spiritual thirst, purification, and redemption. And the second is because white symbolizes rebirth, regeneration, emptying the heart, and being clean.



Directions:

In this test, you will have a chance to examine your listening comprehension skills and your ability to perceive information from the picture.

For each question, you will hear four statements about a picture on the screen. The statements will be spoken just one time. When you hear the statements, you must select the one statement that best describes what you see in the picture. Choose the correct answer, from options: A, B, C, or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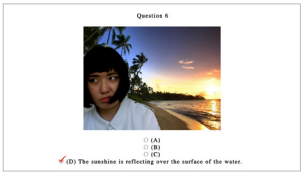
You can check the correct answers at the end of each question and from your test bookl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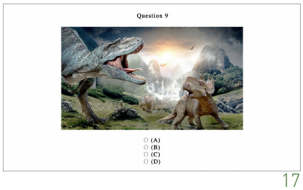
Listening Test: Photographs

이은희 Lee, EunHee | 7min. 44sec. | 2014

이 영상 작품은 언어능력평가 시험과 흡사한 형식의 열개의 문제를 제시하며 개인과 시스템, 주체와 객체, 그리고 언어와 이미지의 상호관계를 관찰한다. 관객은 여러 답안들 중 무엇이 이미지와 가장 적합한지 맞춰야 하는 상황에서 전시공간안의 작품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관객의 위치로 부터, 주어진 문제의 답을 풀어야 하는 수동적인 시험응시자의 위치로 전환하게 된다. 문제의 정답들이 애매모호함과 동시에, 넘어갈수록 문제의 이미지들은 일반적인 연출 사진으로부터 점점 달리하게 된다. 이때 관객은 사진이 재현하는 현실과 가상의 이상적 구분이 어려워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The film offers ten questions in a form similar to a language competence test and observes the interrelation between a person and a system, a subject and an object, and a language and an image. In a situation in which viewers must select the one statement that best describes what they see in a picture, their position shiftsfrom that of a viewer who objectively sees the works on display in the hall to that of a passive test-taker who must find answers to the questions. As the test is conducted, viewers come to realize that the answers are vague and that the images of the questions become different from ordinary images for a test. At the time, they experience that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reality reproduced by photos and a fictitious ide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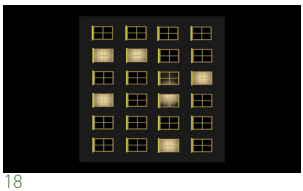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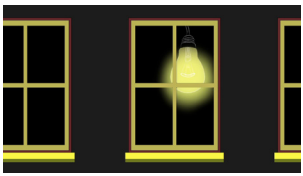
RE : TOUR

이지선 Lee, JiSun | 5min. 56sec. | 2014

구분할 수 없는 방들에 불이 하나씩 켜진다. 방들 사이로 불들이 옮겨다니고, 외벽이 모여 건물을 이룬다. 열려있는 문들이 빼곡한 어두운 복도 끝에 닫혀있는 문이 하나 있다. 빛을 던지며 문이 열리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 ...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경험한 기억, '기억의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의 역동성이 추억과 망각사이의 왕래와, 정신적 그리고 영혼적인 축(築)을 형성한다. 우리는 이러한 기억의 인식의 멈춤없는 회로안에서 스스로를 발견하고, 미래를 향하는 과거와 현재 사이 시간의 흐름안에 스스로를 위치한다. 가장 내적이고 신비한 길을 따라 한바퀴 '기억에서의 회전'을 하고 난 후, 개인의 비밀스러운 '생각의 집'을 이루는 '의식의 작용회로'로 돌아온다.

Undistinguishable rooms are lit up one by one. Light is on in the rooms like being transplanting from one room to the next, and walls gather together to form a building. There is a closed door atthe end of a dark hall packed with open doors. The door is open, casting light, andsomeone walks into the door. . . We have memories about things we experienced consciously or unconsciously,dynamic enough to be called 'the skill of memory' formingthe exchange between memory and oblivion and building a mental and spiritual axis. We find ourselves in the ceaseless circuit of the consciousness of memory and locate ourselves in the flow of the time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that fly toward the future. After rotating in the memory one time, following the most internal and mysterious path, we return to the 'operation circuit of consciousness' that forms a 'house of our personal secret thou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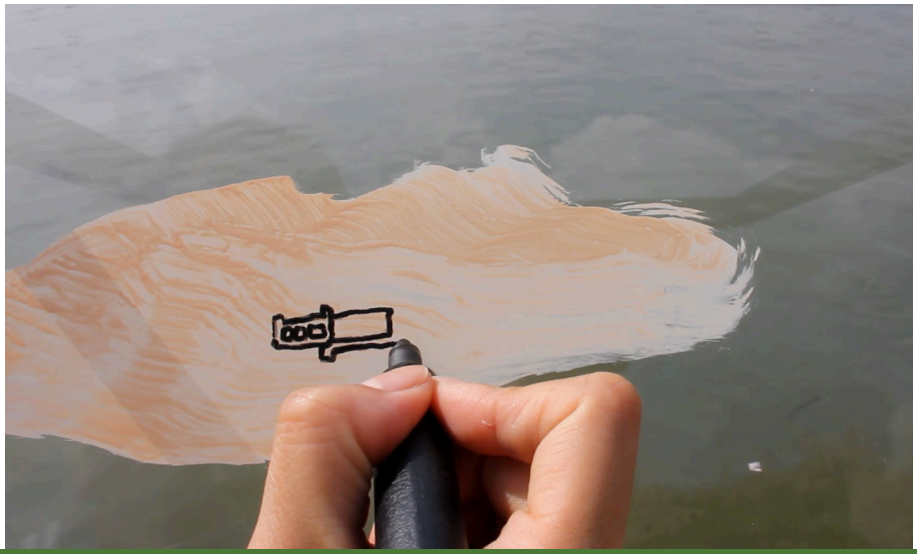


걸어서 세계속으로

임민영 Im, Minyung | LeeWalking into the world | 6min. 51sec. | 2014

〈걸어서 세계속으로〉는 여행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현재 살고 있는 공간들을 새롭게 바라보고자 제작되었다. 낯선 곳으로의 여행이 아니라 흔한 곳으로의 여행, 너무 흔해서 다르게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조명한다. 이 작품은 볼 것도 알아야할 것도 너무나 많은, 현대 문명에 무지한 사람의 시선을 보여준다.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래에서 유적지를 여행하는 듯한 화법을 이용하여 현재를 드러낸다. 그리하여 언젠가는 모두 유적이 될 공간들, 그리고 사람들을 방송의 언어로 담아냈다.

I made this film in the format of the TV program 'Walking into the World' to newly see the places where we are now living: a tour not to an unfamiliar place but to a familiar place. I tried to shed light on things that are so common that we cannot see them from a different view. The film shows the view of a person who is ignorant about modern civilization,which has many things that we must know and see. Since the person does not know, they can see more things. And the film discloses the present, using atechniquein which a person from the future is taking a tour to historic sites. And the film shot people who will live and places that will be historic sites in the future with the language of broadcasting.



랑랑–상상박물관

정혜정 Jung, Hae-jung | WaveWave_Imaginarium | 9min. 40sec. | 2014

나는 한강에서 강남과 강북을, 남한과 북한을 분단시키는 부조리한 모습과 삶과 유린된 한강의 모습을 보았고, 새로운 관점으로 한강을 탐구하기 위해 직접 배를 만들고 한강 수상여행을 떠나기로 한다. 한강을 배경으로 펼쳐진 한국 전 근대의 역사, 환경,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급속하게 변해온 한강 및 서울의 개발과 현재의 모습까지를 나의 개인적인 시점으로부터 시작하여 풀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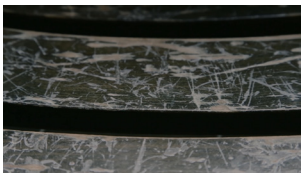
At the Han River, I saw irrational situations and infringements on personal lives that divide Seoul into Gangnam and Gangbuk, and Korea into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o in order to explore the river from a new viewpoint, I decided to make a boat for myself and travel down the river. From my personal view, the film starts to capture the pre-modern and modern history of Korea,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of Seoul called 'Miracle on the Han River', which have been formed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river.

소리의 흔적

허희규 Heo, Heegyu | Trace of the sound | 2min. 24sec. | 2013

작은 도시의 문을 닫은 교회 건물을 방문하고 거기에 남아 있던 많은 의자 및 기자재들에서 모티브를 찾았다. 사람들이 떠나고 난 후 사람들이 쓰던 물건에는 고스란히 그들의 흔적이 남아있다. 하지만 소리는 어떤 물리적인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다만 우리들의 머릿속에 추억 혹은 정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될 뿐이다. 이 작업의 주제는 의자다. 움직이지 않는 의자와 의자들이 끌리고 부딪치는 소리, 두 개의 모순된 미디어를 통해 저는 관객이 의식하지 못 했던 영상과 소리에 대한 예술적 자극을 끄집어내고, 또한 무의식적으로 흘려버리는 소리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모색해 보고 싶었다.

Motive of the work: I once visited a closed church in a small city and found a motive in many chairs and objects there. Explanation of the work: After people leavea place, the things they used are left with their traces. But sound is not left as a physical trace. It is just recorded in our head in the form of memory or information. The theme of the film is chairs. For it, I tried to take out artistic stimuli for theimage and sound of which viewers fail to be conscious of, and to seek diverse views on sound that viewers unconsciously flow away from, through two contradictory media, still chairs and the sounds of chairs being pulled or crashing.



Invitation of the world wave

해외 초청작

로니 트로커	Ronny Trocker
아눅 드 클레르크	Anouk De Clercq
크리스토발 카탈란	Cristobal Catalan
니콜라스 프로보스트	Nicolas Provost
파비앙 꾸뻬	Fabien Coupez
아스트리드 반 님베겐	Astrid van Nimwegen
마리나 체르니코바	Marina Chernikova
알렉세이 드미트리에브	Alexei Dmitriev

7개국 8명의 작가가 참여한 해외초청전은 오늘날의 지구촌 HD 매체의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대안영상예술 작품으로 구성했다. 대안영상예술은 자본논리가 아닌 자기-탐구 영역으로서의 영상예술을 일컫는다. 이 논의에 따른다면 싱글채널 비디오아트로 소개되는 작품들도 대안영상예술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싱글채널 비디오아트는 필름, 비디오, 디지털, HD로의 매체 변화를 통해 카메라라는 제3의 눈으로 세상을 탐구하며 다양한 예술담론을 제시해왔다.

오늘날 비디오아트는 가상세계, 비물질 공간을 탐구하며 사유의 가능성에 화두를 던진다. 본 프로그램의 구성은 인간과는 다른 HD 카메라의 눈을 따라가고자 했다. HD 카메라의 초근접 가능성을 던져주는 크리스토발 카탈란의 〈누구의 것도 아닌〉, 아눅 드 클레르크의 〈사물〉, 마리나 체르니코바의 〈인포 서핑: 모스크바2〉, 디지털의 하이퍼 매개성의 무궁무진함을 보여주는 니콜라스 프로보스트의 〈다크 갤러리〉, 알렉세이 드미트리에브의 〈해석학〉, 익숙한 사건과 공간에 존재하는 비가시화성의 드러내기를 통해 사유의 가능성을 재검토하게 하는 로니 트로커의 〈오점 없는〉, 파비앙 꾸뻬의 〈움바〉, 아스트리드 반 남베겐의 〈문〉 등 오늘날 HD 영상철학의 사유와 화두를 관객과 나누고자 한다.

아이공 대표 김장연호

The Invitation exhibition, in which eight artists from seven countries are taking part, is composed of works for alternative video art from which you can see diverse possibilities of the HD medium around the globe. Alternative video art refers to video art not in the area of capital logic but in the area of self-exploration. According to this definition, the works introduced as single-channel video art can be displayed as alternative video art. Single-channel video art has gone through changes of its media from film to video and digital and HD, and meanwhile, it has offered diverse themes to think of together, exploring the world through the third eye, the camera. Toda, video art gives topics leading us to think about our lives, exploring a virtual world and a nonmaterial space. The composition of this program focuses on following the lens of an HD camera, which is different from the eye of a human. Cristobal Catalan's "Res Nullius," Anouk De Clercq's "Thing," and Marina Chernikova's "INFO SURFING Moscow 2" present the possibility of the closest filming of an HD camera. Nicolas Provost's "The Dark Galleries" and Alexei Dmitriev's "Hermeneutics" show infinite hyper-mediation of the digital media. In addition, Ronny Trocker's "The Immaculates," Fabien Coupez's "Umba," and Astrid van Nimwegen's "Garagedoor" lead the audience to think of our society through the disclosure of invisible things in familiar events or places. This exhibition tries to share with the audience the philosophy and themes of HD im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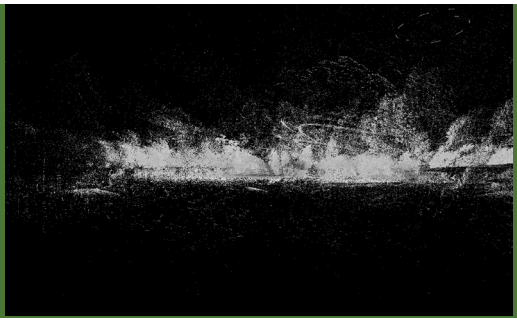
KimJang, Jen Yeno

로니 트로커 Ronny Trocker
오점 없는 The Immaculates

13min. | Color | 2013 | France

일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온 청년은 집 앞에서 울고 있는 16살짜리 여동생을 발견한다. 동생은 두 명의 루마니아 남자들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고, 청년은 그 즉시 가해자들을 찾아 나서지만 실패한다. 그 사실이 알려지고 마을에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하는데…

A young man returns home as he does every evening. He discovers his 16-year-old sister in tears in front of their house. She tells him that two young Romani guys have brutally raped her. The young man immediately goes in search of the attackers but cannot find them. The neighbourhood organizes a solidarity march in view of the event. The tension begins to rise...



아눅 드 클레르크 Anouk De Clercq
사물 Thing

17min. | B&W | 2013 | Belgium

한 건축가가 자신이 세운 도시에 대해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 도시가 상상된 것임을 짐작한다. 그의 이 주장은 자신의 생각들을 고정된 형태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An architect talks about the city he has built. Gradually we realise that the city is imaginary. His account is an attempt to give his ideas a fixed shape. This, in a nutshell, is the story of *Thing*.

크리스토발 카탈란 Cristobal Catalan
누구의 것도 아닌 Res Nullius

4min. | Mixed | 2014 | Spain, UK

라틴어로 '누구의 것도 아닌 몸' 혹은 '누구의 것도 아닌 자산'을 뜻하기도 하는 'Res Nullius'. 이 영화는 상호작용의 동학, 넘나듦, 순례 여행을 위한 하나의 초현실적인 여정이다.

'Res Nullius', Latin for 'no-body's body' or 'no-body's property', is a surreal trip into the dynamics of interaction, trespassing and travel as an act of pilgrimage.

니콜라스 프로보스트 Nicolas Provost
다크 갤러리 The Dark Galleries

11min. | B&W | 2013 | Belgium

1940년대부터 1950년대에 이르는 범죄스릴러나 느와르 영화 속 매혹적인 초상화가 나오는 장면들을 몽타주하였다. 감독은 마치 상상의 방물관을 방문하는 듯한 느낌의 몽타주 전략을 구사한다.

A fascinating hall of mirrors through a montage of film noir scenes where the actors face a painted portrait. This perfect blend of cinema and painting was commissioned to supplement a book study. Provost exploits the rules of editing to create an imaginary museum visit. He guides us through living rooms and picture galleries of 1940s and 1950s noir crime thrillers, gothic melodramas, and ghost stories.

파비앙 꾸뻬 Fabien Coupez
움바 Umba

14min. 41sec. | Color | 2014 | USA

마이클 잭슨의 'Thriller' 속 좀비와 토드 브라우닝의 프릭스가 만난다면? 브루클린 거리에서 뺑소니사고를 당한 한 소녀. 기절했다가 눈을 떠보니 그곳에는 마약중독자, 매춘부, 홈리스, 갱스터 등 사회의 잉여들이 잔뜩 모여 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이 인간애 가득한 괴짜들은 소녀가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시작한다.

What happens when the zombies from Michael Jackson's 'Thriller' meet Tod Browning's 'Freaks'? A beautiful girl suffers from a hit and run on the streets of Brooklyn. Her lifeless body is brought to the morgue where she wakes up among the dead dregs of society: junkies, prostitutes, homeless and gangsters. First perceived as a threat, these freaks will prove to be full of humanity allowing the girl to finally find her peace.

아스트리드 반 님베겐 Astrid van Nimwegen
문 Garagedoor

7min. 33sec. | Color | 2013 | Netherlands

시간과 공간의 변주를 이용한 실험적 무빙 이미지. 우리의 현실이나 존재감각에 대해 최소한의 개입을 시도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관찰한다. 문이 열리면, 그림 같은 네덜란드의 풍경이 드러난다. 시간과 빛을 담은 길고 긴 싱글 테이크가 공간을 점진적으로 진화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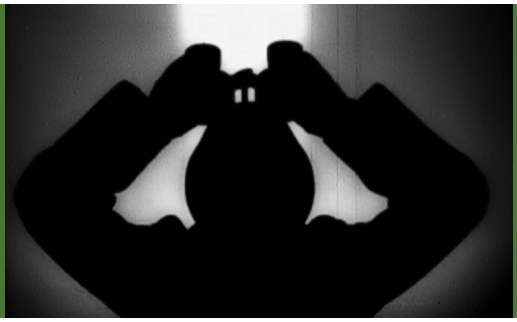
This is an experimental moving image that uses a variation of time and space. As it attempts a minimum intervention in our reality or sense of existence, the film observes the results. The door opens, revealing a pictorial Dutch landscape. A long, single take in which light and time are given space to evolve slowly.

마리나 체르니코바 Marina Chernikova
인포 서핑: 모스크바 2
INFO SURFING Moscow 2

1min. 30sec. | Color | 2012
| Netherlands

새로운 기술들의 빠른 발전은 수많은 다양한 장소의 가상의 존재들을 진짜인 것으로 바꾼다. 우리의 뇌 속에서, 기억 속에서 일어나는 관념들은 비선형적이며 우리가 여기 혹은 저기, 지금 혹은 과거의 어느 때에 머무르게 한다. 우린 지하철을 타면서도 세계여행을 하곤 한다.

The fast increase of the new technologies turns it real: movement and virtual existence at several various places. Non-linear processes in our brains and memories help us to be here and there, now and then. We could ride on the subway having a round-world trip at a time, experiencing the last year adventures or going deep to the computer game world.



알렉세이 드미트리에브 Alexei Dmitriev
해석학 Hermeneutics

3min.15sec. | Mixed | 2012 | Russia

전쟁에 관한 영화.

A war film.

IVAHM Spain Video
Special

스페인 비디오 특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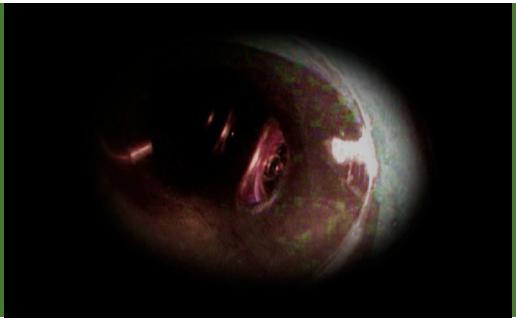
마르타 아즈파렌	Marta Azparren
겐츠 델 발	Gentz del Valle
페페 보티아스	Pepe Botias
이사벨 페레즈 델 풀가	Isabel Perez del Pulgar
이반 디아즈 바리오소	Ivan Diaz Barrioso
메리 카발레로	Mery Caballero
다니엘 마르틴 노벨	Daniel Martín Novel
아나 엔리	Ana F. Henry
엔리케 팔라치오	Enrrique Palacio

스페인비디오특별전에서는 마드리드국제비디오아트하우스(International Video Art House Madred, IVAHM)에서 소개되는 대표적인 작품을 중심으로 소개된다.
IVAHM은 연례 페스티벌을 통해 동시대 스페인 및 유럽 등 전세계 비디오 아티스트와 작품 교류의 장을 구축해가고 있다. 마드리드 아방가드르 센터에서 매년 개최되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비디오아트 축제라 할 수 있다.

큐레이팅 : Director, IVAHM 네스토르 프리에토

The special exhibition for Spanish video introduces representative works that had been displayed at the International Video Art House Madrid, IVAHM. IVAHM, a representative video art festival in Spain, has been building up a platform where video artists from all over the world can have exchanges with each other and display their works. It is held every year at the Avant-garde center in Madrid

Curator : Director, IVAHM Nestor Prieto



마르타 아즈파렌 Marta Azparren
관 Tracto

4min. 58sec. | Color | 2012 | Spain

베이스 색소폰 내부를 내시경으로 탐험한다. 그 안에는 건조함과 촉촉함, 완벽함과 불완전함, 논리와 예측불가능성이 공존한다. 어두컴컴하면서도 살아 숨쉬는 듯한 동굴 속을 걷는 경험. 악기, 소리, 인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인 음악에 대한 내밀하고 감각적인 해석.

The film investigates the inside of a base saxophone. Dryness and wetness, perfection and imperfection, and logic and unpredictability coexist in it. Experience of walking in a cave, which is dark yet seems to be alive and breathing. Music instruments, sounds, secretive and sensitive interpretations on music, which are organic interchanges between humans.

겐츠 델 발 Gentz del Valle
링크 Link

9min. 49sec. | Both | 2013 | Spain

이동, 연결, 연속. 지하 동굴의 하천은 늘 변하고 파악하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과 닮아있다. 이 영화는 감춰져 있는 우리 자신들, 그리고 자연에 대한 해석을 시도한다.

Associations, drifts, concatenations and connections, subterranean streams in the dark that surface as one: the link that shapes our perception of a reality as mutable as it is elusive. An interpretation of nature and of ourselves that has been progressively veiled and muffled.

페페 보티아스 Pepe Botias
비상구 Exit

2min. | Color | 2011 | Spain

한 아이가 착취되고 나면 돌아올 수 없게 된다. 아이에게 일어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반추한다.

After a child is exploited, he cannot return. The film reflects on the irrevocable events that occur to a child.

이사벨 페레즈 델 풀가
Isabel Perez del Pulgar
뼈대 Ossum

9min. 20sec. | Both | 2014 | Spain

물리적 현실을 지탱한다는 점에서 건물의 뼈대는 우리 몸의 골격과 비슷하다. 단단하고 튼튼하지만 살아있고 변화한다. 영화는 이러한 뼈대의 성격을 통해 인류가 풀지 못한 영원한 숙제인 육체와 정신의 이분법적 개념에 도전하며 존재를 탐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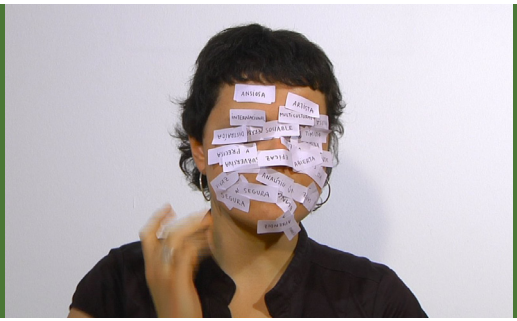
In the aspect of backing a physical reality, the frame of a building is similar to the bones of our body. It is strong and solid, and is alive and changes. The film challenges through the nature of such a frame the dichotomy that divides a human into a body and spirit, a mystery that humankind has failed to solve, and investigates the existence of humans.

이반 디아즈 바리오소 Ivan Diaz Barrioso
시간 속에서 Avec le Temps

5min. | B&W | 2013 | Spain

시간이 가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아무 의문 없이 믿었던 누군가를 향한 눈길이 오늘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시간이 가면 사랑도 멈춘다. 프랑스 가수 레오 페레에게 헌정된 작품.

Over time everything is gone, the faces disappear. That intuited to above with a single glance, at who you believed without know why, today is nothing. Over time you ceased to love. Tribute to french singer Léo Ferré.



메리 카발레로 Mery Caballero
에티켓 Etiquetas

5min. 10sec. | Color | 2013 | Spain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찾아가는 정체성에 대한 작품. 다른 종류의 형용사들에게 라벨을 붙여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 한다. 나의 얼굴에 붙여져 있는 라벨들을 통해 관객들은 나에 대해 알게 될 것이며, 나아가 이 라벨들을 제거하는 작업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게 된다.

A work in which the artist seeks her identity, comparing herself with others. She narrates her identity, giving labels to adjectives of another kind. The audience will know about her through the labels attached to her face, and furthermore, removing the labels means a new start.

다니엘 마르틴 노벨 Daniel Martín Novel,
파트리시아 안드라데스 Patricia Andrades
유럽 Europa

8min. | Color | 2012 | Spain

수많은 전쟁과 전투의 아픔을 겪은 유럽. 유럽은 고전 신화와 문학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반추한다. 이 영화는 신화를 통해 유럽의 근원을 탐구하며 그 후 일어난 성장, 투쟁, 자본주의 등의 문제를 고민한다.

The film ruminates on Europe, which has gone through numerous wars and conflicts through its ancient myth and literature. In addition, it explores the root of Europe through its myth and deals with the development, struggles, capitalism, and so on that have since occurred there.

아나 엔리 Ana F. Henry
크리스탈 캐슬 Crystal Castles

3min. 49sec. | Color | 2013 | Spain

모성은 여자의 필연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모든 아이들이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감독 자신의 유산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실험영화.

Motherhood is part of women inherently. However, it develops in a different and unique way in each of us, sometimes not coming to fruition. That is not spoken. An experimental short film based on the personal process that developed simultaneously to an own spontaneous abortion.

엔리케 팔라치오 Enrrique Palacio
탄생의 불편함
El Inconveniente de Haber Nacido

5min. 53sec. | Color | 2010 | Spain

E. M. 시오랑의 철학적 글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 작품의 미학을 통해 그의 철학을 더욱 철저하고 생생하게 고찰하게 하는, 형식의 경계를 허무는 영상시.

The film is based on The Disadvantage of Being Born, the pessimistic essay of Romanian philosopher and essayst E. M. Cioran. His cynicism about the transience of being is visualized in this beautifully shot video. Cioran is revived as a restless young man living in modern Paris.

The body-attached immaterial space

주제전
신체에 접속된 비물질 공간전

Planning KimJang, Jen Yeno
기획 김장연호

고병준 Ko, Byung-jun
고상석 Ko, Sang-sok
김주미 Kim, Ju-mi
김진섭 Kim, Jin-sub
박승원 Park, Seung Won
신미리 Shin, Mi-ri
정연범 J, Beomyoun
최고은 Choi, Go-eun

신체에 접속된 비물질 공간전은 디지털-비물질 공간을 읽는 신체와 인간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디지털 시대를 넘어 HD 단계로 온 매체환경은 비물질 패러다임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이러한 환경은 물질적 세계만이 아닌 비물질 세계에까지 접속하는 인간의 가능성을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즉 소통의 90%가 비물질 세계에서 이루어진다. 작가는 HD매체를 통해 현실을 재구성하는 가상현실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물질세계에서는 이뤄질 수 없는 형태가 이뤄지는 공간을 실험한다. 본 프로그램의 작품들은 물질세계의 신체와 비물질세계인 이미지와의 상호성에 관한 논의를 탐구하는 작품들이다. 실재공간을 재구성하여 현실을 비판하는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김진섭의 〈Meditation at the Window〉, 고상석의 〈디지털 랜드 스케이핑〉, 가상공간에서의 인간성을 사유하는 김주미의 〈[~]나타나다 [~]사라지다〉, 정범연의 〈고정적 동작패턴과 복제〉, 신미리의 〈유기놈〉, 가상과 실재의 신체와 움직임을 사유할 수 있는 고병준의 〈춤〉, 최고은의 〈무용〉, 박승원의 〈Homo Magicus〉, 〈Homo Artex〉 등의 작가 작품을 통해 인간과 매체의 매개성에 관한 다양한 담론을 관객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아이공 대표 김장연호

The exhibition "The Body-attached Immaterial Space (42 Min)" is composed of works in which the audience can see humans and their bodies in a digital (immaterial) space. The world has changed from a digital era to an HD era, and thus we can call today an immaterial paradigm era. In addition, we now live in an environment where we can conduct an experiment again if we can contact not only a material world but also an immaterial world. 90% of our communication is already done in the immaterial world. The artists in this exhibition show a virtual reality reconstructed through HD, or create a space that cannot be formed in the material world. Their works explore the interaction between bodies in the material world and images in the immaterial world. KIM Jin-sub's "Meditation at the Window" and KO Sang-sok's "Digital Laandscascapiing" weigh up video art as a means with which they can criticize reality by reconstructing a real space. KIM Ju-mi's "[~] Appear [~] Disappear," J, Beomyoun's "Fixed Action Pattern and Reproduction," and SHIN Mi-ri's "Bioman" contemplate humanity in a virtual space. KO Byung-jun's "The Dance," CHOI Go-eun's "Nothing," and PARK Seung Won's "Homo Magicus" and "Homo Artex" show the movements of bodies in virtual and real spaces. Through these works, this exhibition tries to share with the audience diverse themes on the mediation between humans and media.

KimJang, Jen Yeno

고병준 Ko, Byung-jun
춤 The Dance

4min. 43sec. | Mixed | 2013 | Korea

나는 〈춤〉이라는 애니메이션 작업을 통해 현대인의 메마른 정서와 고독 그리고 러닝타임의 연속선상에서 새롭게 창출되 는 어떤 종류의 삶에 대한 의지를 춤으로 표현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초당 30프레임을 그려내는 고된 로토스코핑 기법과 정제되어있지 않은 표현주의적 드로잉 애니메이션 기법, 그리고 음악적 정서에 맞물리는 주관적인 춤사위가 합해져 독특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작가 개인의 내면정서를 독창적이게구 현하려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작가 본인과 상응하는 현대인의 고독과 소외 그러나 내면적 갈등을 극복하고 자아를 찾아가는 현대인의 정체성 확립과의정 을 시각적, 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작품을 제작하였다.

This writer is to express a sort of the will to live newly created in dancing from the continuity of the cold-hearted modern, loneliness, and show time of work arising from the flow of rhythm through music with the animation work like The Dance . To achieve it, this writer tried to embody the writer's own internal sentiment by creating the unique synergy effect, combining with the hard rotoscoping technique drawing 30 frames per second, the expressionistic drawing animation technique without refinement, and the subjective dancing steps engaged in the musical emotion. In this way, this writer produced the work in order to overcome the modern loneliness, alienation corresponding to the writer's own one, and covert conflict, and to deliver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modern identity finding their egos visually and dramatically.

고상석 Ko, Sang-sok
디지털 랜드스케이핑 Digital Landscaping

2min. 49sec. | Color | 2013 | Korea

디지털 사진 편집 프로그램인 포토샵을 통해 건물들은 복제되고, 원근법에 따라 크기가 조정된 건물들이 레이어를 형성하며 쌓여간다. 그와 함께 들려오는 사운드는 단조롭고 반복적인 마우스 클릭음뿐이다. 그렇게 레이어가 쌓여가며 풍경은 계속 변화하고 그렇게 하나의 풍경이 마침내 완성되었을 때 그것은 실재하는 공간인 인천 송도의 풍경으로 이어진다.

Buildings are duplicated using Photoshop, a digital photo editing program, and the buildings whose sizes are changed in terms of perspective are placed one by one. Meanwhile, only the click of a mouse is heard repeatedly and monotonously. As the number of buildings increases, the scene continuously changes. When the scene is finally completed, it is connected to the landscape of the city of Songdo in Incheon.

김주미 Kim, Ju-mi
〔~〕 나타나다 〔~〕 사라지다
〔~〕 Appear 〔~〕 Disappear

7min. 12sec. | Mixed | 2013 | Korea

시각에 포착되기 이전의 시간은 현상 뒤에 은둔한 채 나즈막하게 흐르고 있었다. 유동적인 흐름은 상이 맺힐 수 있는 표면 위로 착상될 순간을 노렸고, 시간의 단위는 이미지의 파동으로 잔잔히 생성되었다. 〔~〕는 무언가를 쓰다가 지우기를 반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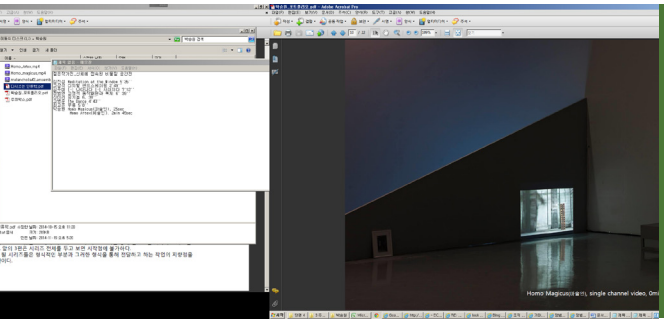
The time captured before a certain time lowly flows hidden behind a phenomenon. The flow seeks a moment when it will be put on the surface where an image can be formed. Moreover, the unit of time was calmly formed with the wave of an image. [~] repeats writing and removing something.

김진섭 Kim, Jin-sub
Meditation at the Window

5min. 35sec. | Color | 2014 | Korea

열병합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를 소재로 삼아 자아와 주변환경에 대한 의식을 명상의 형식으로 묘사하였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스토리의 환경이 드러나기 전까지, 관객은 은유의 조각들만으로 스토리를 이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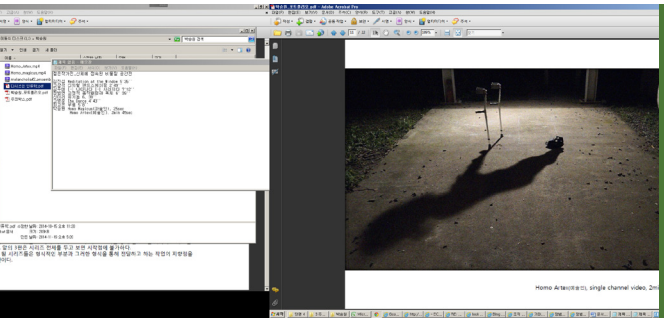
The film adopts the smoke pouring out of a cogeneration plant as its subject, and describes the recognition of one' self and the environment around them in the form of a meditation. Until the environment of the film is revealed at the end, the audience understands the story only through fragments of metaphors.



박승원 Park, Seung Won
Homo Magicus(마술인)

25sec. | Color | 2014 | Korea

독일 유학 후 한국에 돌아와서 느낀 것은 삶을 지속할 수 없는 형태의 그래서 죽음과도 맞닿아 있는 사라져 버림에 대한 불안이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삶의 극단에 몰려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와 이러한 환경 속에 홀로 독립된 작가로 살아가기 위한 본인의 경험들이 한대 어우러진 것 이였다. 나는 이러한 경험을 3편으로 이루어진 다시 쓰는 인문학 시리즈: Homo Magicus(마술인), Homo Artex(예술인), Homo Ludens(유희인)을 통해 표현했다. 3개의 영상작업 속에서 불안정하게 버티고 있는 신체는 관계가 끊어져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듯한 사물들 너머로 필사적으로 자신의 움직임을 남긴 채 사라져 버린다.



박승원 Park, Seung Won
Homo Artex(예술인)

2min. 45sec. | Color | 2014 | Korea

What I felt after I returned to Korea from Germany is a fear of the prediction that people might not sustain their lives, a fear of disappearing, which is close to death. This is the story of people who often appear in Korean society and are driven to the extremes of life, and is my experience living in such an environment as an independent artist. I expressed my experience with the series 'Rewriting Humanities': Homo Magicus, Homo Artex, and Homo Ludens. The body, unstably enduring in these three videos, disappears into nowhere, desperately leaving its movements beyond the objects that seem to exist independently, being cut off from relationships with others.

신미리 Shin, Mi-ri
유기놈 Bioman

6min. 38sec. | Color | 2012 | Germany, Korea

가상의 한 유기체가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모습을 의인화를 통해 보여준다. 동물, 식물, 인간, 그리고 인간이 만든 기계들을 공감으로써 느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Showing an anthropomorphic and animated organisms which try to maintain their life, I hope you feel empathy with animals, plants and human creatures.

정범연 J, Beomyoun
고정적 동작패턴과 복제

6min. 39sec. | Color | 2014 | US, Korea

고정적 동작 패턴으로부터 수많은 것들이 복제된다. 대량생산과 고정적 동작 패턴은 연관성이 높다. 이런 동작은 인간을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로 인식시키고, 원본은 원본 본연의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그것을 선별할 수 있는 인식체계의 혼란을 가져다 준다. 그 결과 본연의 가치에 대가 평가를 절하 시킨다. 그러나 상관없다. 어차피 결국 원본과 복제 존재는 모두 사라져 버릴테니…….

Numerous objects are duplicated from the pattern of a fixed action, which has a high correlation with mass production. Such an action forces us to recognize a human as not a human but as another being altogether. In addition, an original object exists with its original appearance, but it causes our recognition for selection to be confused. As a result, it brings out a devaluation of the original. But I don't care about this. At the end, both the original and duplicated objects will disappear.....

최고은 Choi, Go-eun
무용 Nothing

5min. 8sec. | Color | 2013 | Korea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끝내는 표현하지 못한 많은 마음들에 대한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보았다. 도시, 더 나아가 미디어에서 작동하는 시간과 개인의 시간은 결코 같은 템포로 흐르지 않는다. 가장 잘할 수 있는 이야기, 가장 솔직한 이야기는 과거의 나에게 사과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고민하고, 망설여하 고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도 진심이라는 건 분명히 있다고. 그 마음을 죄스럽게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설사, 그 상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I made an animation of a story that I ended up failing to express, I hesitate to confess. The time of the medium and the time of an individual, including the time of the city, do not flow at the same tempo. The best story, the most honest story is to apologize to me from the past. At the moment of worry, hesitation and passing, you can feel your cordiality. I want to say that you don't feel guilty about that cordiality even though that imagination is not realized

ARTIST PROFILE
참여 작가 소개

Selected Korean Artists in Competition
국내경쟁작

남예지 Nam, yeji

2014 현 경성대학교 재학중 2012 '꽃을 보다' 남예지 개인전(문화매개공간 쌈) **2014** Attending Kyungsung University **2012** 'See Flower' Nam yeji's private exhbition (Suyeong station Art Mediate 'SSAM')

도미노 Domino

CAREER 2014 Connection(Si-jac gallery, Seoul) / Media Platform(j-square, busan) / Live Brilliant in Mstage(Seoul) **WORKGRAPHY** Simstim / (blank)_city 2013 Flamenco Room / Resonance

백정기 Baek, JungKi

1998 홍익대학교 회화과 중퇴 2007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조형예술과 졸업 / 2014 생생화화 生生化化 2014(경기도미술관, 안산) / 청년미술프로젝트 YAP'14(대구전시컨벤션센터, 대구) / 미지의 실천영역(사천미술학교, 중국) / 공간을 점령하라!(아트스페이스 갤러리 정미소, 서울) 2013 RMP_b, 서울주행보고, UNDERLINE(오!재미동 갤러리, 서울) / 제13회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2007 소마미술관 개관전 2 부 '막긋기'(소마미술관, 서울) **1998** Hongik University, Painting(non-degree) **2007**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Trts (B.F.A) **2014** The Breath of Fresh 2014(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Korea) / Young Artists Project 2014(EXCO, Daegu, Korea) / 未知的实践场域, Sichuan Fine Arts Institute(Chongqing, China) / OCCUPY JUNGMISO(ART SPACE GALLERY JUNGMISO, Seoul, Korea) **2013** RMP_b, Seoul Driving Report, UNDERLINE(Oh!Zemidong Gallery, Seoul, Korea) / The 13th Seoul International NewMedia Festival(Seoul Art Space Seokyo, Seoul, Korea) **2007** Drawn to Drawing 2(Soma museum. Seoul, Korea)

서평주 Seo, Pyoungjoo

2014 부산대학교 대학원 서양화 졸업 2011 부산대학교 서양화 졸업 / 개인전 2014 ()의 깃발(재미난 복수 b-hall, 부산) 2013 라이브 페인팅(부산대 아트센터, 부산) 2012 생명연습(오픈스페이스 배, 부산) 2010 황색신문(대안공간 반디, 부산) / 수상 2014 제25회 부산 청년 미술상(부산청년미술상위원회, 부산) 2013 제10회 부산 국제 비디오 페스티발 선정(대안공간반디, 부산) 2012 제 9회 부산 국제 비디오 페스티발 선정(대안공간반디, 부산) 2010 제 7회 부산 국제 비디오 페스티발 선정(대안공간반디, 부산) 2009 제31회 중앙 미술대전 선정(중앙일보문화사업, 서울) **2014** Pusa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degree **2011** Pusa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degree **Solo 2014** Flags of the ( ) / B hall, Pusan **2013** live p(f)ainting / Pusan National university Artcenter **2012** Life Practice / openspace bae **2010** yellow press / Alternative space bandee **Award 2014** 25th pusan Youth Art Award **2013** 10th Busan International Video Festival, selected artist **2012** 9th Busan International Video Festival, selected artist **2010** 7th Busan International Video Festival, selected artist **2009** 31th Joongang finearts prize, selected artist

윤석원 Yoon, Suok-won

2007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사진영상디자인과 졸업(BFA) 2009 계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사진.애니메이션학과 사진전공 졸업(MFA) 2013 영국 코벤트리 대학교 Fine Art 졸업(BA) 2014 영국 코벤트리 대학교 Contemporary Arts Practice (media art 전공) 졸업(MA) / 주요전시 2005- 2014 10th 아테네 비디오 아트 페스티벌(아테네, 그리스) / konnektor - Forum für Künste(하노버, 독일) / The National Review of Live Art(모던아트 갤러리, 에딘버러, 스코틀랜드) / 토리데 국제 비디오 프로젝션(토리데 공공 시설 및 일대 지역, 일본) / Heaven and Hell(이스파치오 갤러리, 런던, 영국) / Still lives(사라 메이어스코프 갤러리, 런던, 영국) / Focal resolution(클라이매이트 갤러리, 뉴욕, 미국) 등 다수 **2007** BFA in Photographic Design, Keimyung University, South Korea **2009** MFA in Photographic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 Keimyung University, South Korea **2013** BA in Fine Art, Coventry University, Coventry, UK **2014** MA Contemporary Arts Practice (Media Art), Coventry University, Coventry, UK **Selected Exhibitions**

2005-2014 10th Athens Video Art Festival, Athens, Greece / konnektor - Forum für Künste, Hanover, Germany / The National Review of Live Art, Gallery of Modern Art, Edinburgh, Scotland / Toride International Video Projection, Toride rail station & public street, Toride, Japan / Heaven and Hell, Espacio Gallery, London, UK / Still lives, Sarah Myerscough Fine Art Gallery, London, UK / Focal Resolution, Climate Gallery, New York, USA etc

윤자영 Yoon, Jayoung

2006 홍익대학교 회화과 졸업 2007 홍익대학교 회화과 대학원 졸업 2009 Cranbrook Academy of Art, Bloomfield Hills / 개인전 2011 Cleansing the Memories(한전아트센터, 서울) 2013 Mind out of Time(Here Arts Center New York, 뉴욕, 미국) / 단체전 2014 BAC gallery 1st Thursday Screening(Brooklyn Arts Council, Brooklyn, 뉴욕, 미국) 2013 Korean American Film Festival New York.2(Sylvia Wald and Po Kim art Gallery, New York, 뉴욕, 미국) 2012 Cinematographer, Video Art & Digital Cultures, Primo Piano Livingallery, Lecce(이탈리아) / 수상 2014 BRIC Media Arts Fellowship, Brooklyn(뉴욕, 미국)

이은희 Lee, EunHee

2008-2014 베를린국립예술대학교 순수미술학과 학사/ Meisterschüler학위 졸업 2014-현재 한국예술종합대학 비디오아트 전문사 재학중 **2008±2012** Bachelor of Fine Arts, Univeristät der Künste Berlin. Germany **2014** Meisterschüler of Prof. Hito Steyerl, Universität der Künste Berlin. Germany **2014± Now** Master in department of Fine Art, Visual Arts, Korea University of Arts, Korea

이지선 Lee, JiSun

2008년 배화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프랑스 생활을 시작하여 2011년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Art de Dijon(디종국립고등미술학교) 학사과정을 졸업하고 2013년 프랑스 국립고등조형미술석사를 취득하며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2013년부터 프랑스 예술가 협회가입하고 파리의 Martine et Thibault de la Châtre 갤러리와 협력하며 본격적인 작가활동을 시작하였고, 2014년부터 재불청년작가협회에 가입하고 CultureM 매거진의 컨트리뷰터로 활동 중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에서 각종 그룹전과 비디오 페스티발, 아트페어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After graduating Pai-Hwa high school in 2008 in Seoul, Korea, I started living and studying Fine Art in France. I graduated from National Superior Art School of Dijon (ENSA Dijon) obtaining the French National Art Diploma (DNAP : equivalent to Bachelor of Arts) in 2011 and the French National Superior Art Diploma (DNSEP : equivalent to Master 2 of Arts) in 2013 with compliments. Since 2013, I am member of French artists association (Maison des Artistes) and collaborate with the Parisian gallery Martine&Thibault de la Châtre. Since 2014, I work as member of Korean young artists association (AJAC France) and also as contributor on CultureM Magazine. Now, I live and work especially in Paris, participating to several exhibitions, video festivals, art fairs in France, Switzerland, Spain, Korea, etc.

임민영 Im, Minyung

2006-2011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사진학과 졸업 / 개인전 2014 노량진플레이(노량진 육교, 서울) 2013 테아트룸문디(라제너럴, 파리, 프랑스) / 그룹전 2014 고시영화제(서울)2013 종합극장(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서울) 2011 서울 사진 축제 포트폴리오展(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분관, 서울) 2010 미래작가상 수상전(캐논플렉스 갤러리, 서울) 外 다수 **2006-2011** B.F.A. Photography and related media, College of Arts, Chung-Ang University, Korea **Solo Exhibition 2014** Noryangjin Play, Noryangjin Bridge, Seoul, Korea **2013** Theatrum Mundi, La Générale, Paris, France **Group Exhibition (Selected) 2014** Gosi Film Festival, Seoul, Korea **2013** Interspace Dialogue,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2011** Seoul Photo Festival Portfolio Exhibition, Seoul Museum of Art(Kyunghee Palace), Seoul, Korea / 2011 Seoul Photo Festival Portfolio Exhibition, Seoul Museum of Art(Kyunghee Palace), Seoul, Korea

정혜정 Jung, Hae-jung

2013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전문사 졸업 2011 Geneva University of Arts & Design (exchange) 2009 홍익대학교 회화과 졸업 / 개인전 2012 9와 3/4 플랫폼(이태원거리, 갤러리175, 서울) 2011 서울개미와 잃어버린 여행가방 전(서울시립미술관) / SeMA 신진작가 지원전(그림손 갤러리, 서울) 2010 Close your eyes 전(갤러리 도올, 서울) / 단체전 2014 창작의 내

일(서울 시민청, 서울) / Korea Tomorrow전(동대문디자인프라자, 서울) / 누구나 이야기가 있다 전(경기도미술관, 경기도) / 협업의 묘미 전(영은미술관, 경기도) **Education** (MA)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oul, Korea / (MA) Geneva University of Art & Design, geneva, Switerland (exchange) / (BA) Hong ik University, seoul, Korea **Solo exhibition 2012** 9 and 3/4 platform, Itaewon street, gallery 175, seoul **2011** Seoul Ant and A Missing bag, Grimson Gallery, seoul **2010** Close your eyes, Doll gallery, seoul **Group exhibition 2014** Creativity's tomorrow, Seoul City hall, Seoul / Korea Tomorrow, Dongdae-mun design plaza, Seoul / Everyone has their stories, Gyeongi-do museum, Gyeongi / collaboration's attraction, young-eun museum, Gyeongi

허희규 Heo, Heegyu

2014 예술조형예술대 자브뤼켄 마에스터슐러 과정 사운드 아트, 미디어아트 전공 / 제1, 7 회 반디 비디오페스티벌 입선 / 2014 Hagergroup 2015 신년카드 사진 프로젝트 선정

Invitation of the World Wave
해외초청전

로니 트로커 Ronny Trocker

이탈리아 볼차노에서 태어났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영화대학에서 영화를 공부했다. 현재 그는 벨기에의 브뤼셀과 프랑스의 릴을 오가며 활동 중이다. 2007년부터 단편 작업을 시작했으며 〈Amor Precario〉(2007), 〈MTR-Aus der Fabrik, auf die Strasse〉(2008), 〈Granzland – Terra diconfine〉(2012), 〈Eiszeit 〉(2012) 등의 작품이 있다. Ronny Trocker was born in Bolzano, Italy. He studied cinema at the Universidad del Cine in Buenos Aires. Currently he is living and working in Brussels and Lille. He started his career from 2007 and his films are Amor Precario (2007), MTR-Aus der Fabrik, auf die Strasse (2008), Granzland - Terra di confine (2012), and Eiszeit (2012).

아눅 드 클레르크 Anouk De Clercq

겐트에서 피아노를, LUCA 예술학교에서 영화를 공부하였다. 그는 컴퓨터 언어의 시청각적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아트 브뤼셀(2005년)과 프릭스 아르스 일렉트로니카(2014)에서 수상하는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그는 겐트대학 예술 연구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Anouk De Clercq studied piano in Ghent and film at the Sint Lukas Brussels University College of Art and Design. Her works explore the audiovisual potential of computer language to create possible worlds, many of which have a strongly architectonic character. She has received several awards, including the Illy Prize at Art Brussels in 2005 and a Prix Ars Electronica Honorary Mention in 2014. Anouk De Clercq is affiliated to the School of Arts University College Ghent as an artistic researcher.

크리스토발 카탈란 Cristobal Catalan

다양한 학제를 넘나드는 연구자이자 작가, 사진가이며 현재는 주로 음악활동, 퍼포먼스, 댄스필름 등에 대해 작품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런던대학에서 연극, 관음증, 젠더 등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Inter-disciplinary researcher, writer and photographer currently working in music, performance and dance film. Embarking on a doctorate studying performance, voyeurism and gender as practice based researcher at the University of London.

니콜라스 프로보스트 Nicolas Provost

벨기에 브뤼셀에 거주하는 영화제작자이자 비주얼 아티스트이다. 벨기에 겐트에 있는 왕립예술학교에서 공부했으며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10여년 간 일러스트레이터, 그래픽 디자이너와 예술감독으로 활동했다. 1990년 후반에는 비디오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는 전세계적으로 상영 및 많은 국제영화제 수상을 가져다 주었다. Nicolas Provost is a filmmaker and visual artist living and working in Brussels, Belgium. He studied at the Royal Academy of Fine Arts in Gent, Belgium and spent 10 years in Oslo, Norway where he first worked as an illustrator, graphic designer and art director. In the late 1990s he started making video works, which have been screened worldwide and have received awards at many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파비엔 쿠페즈 Fabien Coupez

미국에서 활동하는 영화감독이자 제작자, 각본가이다. 그는 그리스 신화로부터 니체에 이르는 다양한 것들로부터 영감을 얻고 있으며 특히 음악에 일가견이 있다. 14년간 플레임 아티스트, 혹은 VFX 슈퍼바이저로 활약해 왔으며 〈움바〉는 그의 첫 작품이다. He is a director, a producer and a writer. Fabien lives in Brooklyn, has a heart in Paris and draws inspiration from Greek Mythology to Nietzsche and especially from Music. He has been in production as a Flame artist and VFX supervisor for over fourteen years. Umba is his first film.

아스트리드 반 님베겐 Astrid van Nimwegen

2013년 로테르담에 있는 피에츠바르트인스티튜트를 졸업했으며 작품에서 주로 네덜란드의 다양한 경관들에 대한 명상적인 요소들을 선보여왔다. 비디오 작업을 포함한 그녀의 영상 대부분은 자연에 대한 정지된 롱 쇼트로 구성된다. Astrid van Nimwegen graduated from the Piet Zwart Institute in Rotterdam in 2013. Her works showed almost meditative looks at the (Dutch) landscape. Many of her films, including video recordings, are composed of long static shots of nature.

마리나 체르니코바 Marina Chernikova

암스테르담과 모스크바를 오가며 거주하는 마리나 체르니코바는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예술학교에서 이미지합성과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공부한 후 러시아의 모스크바예술아카데미에서 회화를 공부했다. 그녀가 진행중인 〈어반 서핑〉 프로젝트는 실험비디오와 실제 도시에 기반한 프린트된 이미지를 통합하여 예술적 재현의 매개체로서의 비디오 언어를 탐험한다. Marina Chernikova lives in Amsterdam and Moscow, holds a European Media Master of Arts in Image Synthesis and Computer Animation from Utrecht School of the Arts in Netherlands and Master of Fine Art in painting from Moscow State Academic Institute of Fine Arts, Russia. Her project URBAN SURFING unites experimental videos and prints based on investigations of the perception of urban reality and explores the language of video as the medium for artistic representation.

알렉세이 드미트리에프 Alexei Dmitriev

전직 영문학을 가르치는 교사였으며, 현재는 비주얼 아티스트이자 큐레이터, 프로그래머로 활동 중이다. Alexei Dmitriev is an ex-English and literature teacher, now visual artist, curator and programmer

IVAHM Spain Video Special
스페인비디오특별전

마르타 아즈파렌 Marta Azparren

미술을 전공했으며 비디오 아트와 비주얼 아트, 넷 아트를 오가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녀의 작품은 LA 뉴미디어페스티벌, 댄스온카메라페스티벌, 아트베이징, 서울국제실험영화제 등 국제적인 아트페어 및 미디어축제에서 선보인 바 있다. Graduate in Fine Arts, she shares out her artistic activity between video art, visual arts and net.art. Her work has been showed at festivals and international art fairs such as New Media Film Festival (Los Ángeles), Dance on Camera Festival (New York), Art Beijing (Pekin), EXiS Festival (Seul), Videoformes (Clermont-Ferrand), among others.

겐츠 델 발 Gentz del Valle

아티스트이자 예술학 박사인 겐츠 델 발은 현재 바스크지방대학에서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추상적 드로잉』(2011)의 저자이며, 그녀의 작품은 여성성, 우리와 자연의 관계, 비관습적인 정체성 등을 반영한다. 사진, 조각, 비디오, 드로잉 등을 결합한 설치 작품을 주로 작업한다. Gentz del Valle (Bizkaia, Spain) is an artist with a PhD in Fine Arts and associate professor of Drawing at the University of the Basque Country. Author of the essay Enausencia del dibujo (2001), her work reflects on femininity, our relationship with nature and unconventional notions of identity. Her exhibitions often take the form of installations that incorporate a variety of media, such as photographs, sculptures, videos and the omnipresent constant of drawing.

페페 보티아스 Pepe Botias

마드리드필름인스티튜트에서 영화연출을 공부한 후 영화 연출을 하며 〈셰임〉을 비롯한 영화에서 배우로 활

약하였다. 후에 촬영을 공부하며 사진작가, 촬영감독으로 일하며 다수의 뮤직비디오와 광고를 만들었다. He studied film directing at the NIC (Madrid Film Institute) and directed and performed various roles in films including Shame by Felipe Vara de Rey. He then studied cinematography for digital cinema. He developed his career also as a photographer, cinematographer exercised in many short films, music videos and commercials.

이사벨 페레즈 델 풀가 Isabel Perez del Pulgar
그라나다대학교에서 지리학과 예술사를 공부하였다. 그녀는 또한 그라나다예술학교에서 색채이론, 회화, 드로잉, 판화, 디지털아트, 디자인 등을 공부하였다. 2007년 이후로 그녀는 움직임, 소리, 회화적 이미지를 결합한 비디오 아트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Graduated in geography and in art history at the University of Granada. Studied color theory, painting, drawing, printmaking, digital art and design at the school of arts of Granada. In 2007 she started to work with the video media, a way to combine movements, sounds and pictorial visions.

이반 디아즈 바리오소 Ivan Diaz Barrioso
1970년 마드리드 출생. 1995년 마드리드에 있는 트라코르 그래픽디자인학교에서 일을 시작했으며 동시에 그래픽 디자인과 3D 애니메이션을 공부했다. 다수의 단편영화 성공 이후, 상업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을 기획하고 있다. Born in Madrid, Spain, in 1970. In 1995 he began to work in commercial graphic design school TRACOR, located in Madrid. In TRACOR, he studied graphic design and 3D animation. Today, after a long experience in the production of short films and harvested successes, projected production of an animated feature for professional marketing.

메리 카발레로 Meri Caballero
1985년생. 바르셀로나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다. 인류학, 심리학, 사회학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시각언어를 통해 정체성의 양식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 Born in 1985. She lives and works in Barcelona. She is interested in the represent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identity through the visual language, from a perspective focused on anthropology, psycology, sociology, etc.

다니엘 마르틴 노벨 Daniel Martín Novel
파트리시아 안드라데스 Patricia Andrades
파트리시아 안드라데스는 1981년 말라가에서 태어났으며 비디오 아티스트, TV 연출자로 활동하고 있다. 다니엘 마르틴 노벨은 영화감독이자 TV연출자이며 각본가이다. 파트리시아는 2003년 이래로, 다니엘은 2000년 이후로 미디어 업계에 몸담고 있다. Patricia Andrades is a video artist, TV director and illustrator. Born in Malaga in 1981. Working in the media since 2003. Daniel Martín Novel is a filmmaker, TV director and scriptwriter. Dedicated to the media since the year 2000.

아나 엔리 Ana F. Henry
1974년생이며 헷소에 거주하고 있다. 건축을 전공한 뒤 빌바오영화학교에서 촬영을 공부하였다. 현재 비디오 아트와 함께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Born in 1974, and lives in Getxo. After studying Architecture, she studied at the Bilbao Film School Kinema in the specialty of Cinematography. Now she's working as a professional photographer with video art.

엔리케 팔라치오 Enrique Palacio
1978년 마드리드 출생. 사진작가이자 영화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광고 등 상업적인 작품과 예술 작품을 동시에 만들며 이 두가지의 융합을 추구한다. Born in Madrid, 1978. He is a photographer and a filmmaker. He works between commercial and art, and tries to mix both world.

훌리아 후아니즈 Julia Juaniz
영화감독 겸 비디오 아티스트, 포토그래퍼. 사라고사 대학교에서 약학을 전공했으며 1986년부터 영화 편집일을 하며 영화경력을 시작하였다. 다양한 단편영화들과 비디오아트 작품, 사진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She is a filmmaker, video artist and photographer. She studied medicine at the University of Zaragoza. She started her film career with film editing in 1986. She is working various short films, video arts, and photographs.

The Body-Attached Immaterial Space
주제전: 신체에 접속된 비물질 공간전

김진섭 Kim, Jin-sub
2004년 콜롬비아대학교 대학원에서 영화연출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KIM earned a master's degree of film directing at the University of Columbia.

고상석 Ko, Sang-sok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부를 졸업했으며 〈나의 하루〉(2007) 등의 단편이 있다. 2008년 RTV 대학생영상공모전에서 입상한 바 있다. KO graduated from Kyungil University with a degree in photography and photographic image. He has directed a number of short films including My Routine (2007). He also has won an award at the RTV Video Contest in 2008.

김주미 Kim, Ju-mi
현재 서울예술대학 미디어창작학부에 재학 중이다. 〈한국어수업〉(2012), 〈형상기억장치〉(2013) 등의 단편 작품이 있다. Currently studying fine arts at the Seoul Institute of the Arts, KIM has made short films such as Korean Lesson (2012) and Shape Memory Device (2013).

정범연 J, Beomyoun
경주대학교 사진영상학과를 졸업하고 요한와세다외국어학교에서 일본어를 공부했다. 낭시2대학에서는 프랑스어를 공부했으며 파리8대학에서 영화연출이론을 공부했다. 파리국제음악원에서는 작곡을 전공하였다. He graduated the Photography and Image department of Gyeongju University in 2004. He learned Japanese language at Yohan Waseda Foreign Language School in Japan, and french language at Université Nancy 2 in France. He studied film making at Université Paris 8 and majored music at Conservatoire International de Musique de Paris in 2012.

신미리 Shin, Mi-ri
1982년 서울 출생. 2006년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뒤 2012년 독일 쾰른미디어예술대학에서석사학위를 받았다. Born in Seoul in 1982. She graduated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 in 2006 and earned the Diploma at Academy of Media Arts Cologne, Cologne, KHM.

고병준 Ko, Byung-jun
경희대학교 회화과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SK에너지' 외 다수의 TV CF 제작 경력이 있다. 이 작품은 2013년 인디애니페스트 본선에 진출하였다. He studied fine arts at the Kyung-Hee graduate school, and has produced many television commercials including 'SK Energy'. The Dance made it to the final selection at the 2013 Indie-AniFest.

최고은 Choi, Go-eun
2005년 계원예술대학교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했다. 뮤직비디오 〈그날의 기분〉을 연출하였으며 〈무용〉은 제5회 장롱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CHOI studied visual communication at the Kaywon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She has directed the music video Here We Go and her film Nothing screened at the 5th Jangrong Film Festival.

박승원 Park, Seung Won
1980년생. 서울대 서양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함부르크 조형 미술대학에서 순수미술 디플롬을 졸업했다. 2012년 개인전 〈Good Morning Miss Lilli!〉(SeMA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을 했으며, 〈느낌의 공동체〉(SeMA 난지 전시장, 2014), 〈선물〉(서울시립미술관 2013 신소장 작품전, 2013), 〈파경:비디오아트의 퍼포먼스〉(한국영상자료원, 미디어극장 아이공, 2013) 등 다수의 그룹전을 진행했다. Born in 1980, Park Seung Won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Western Painting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n from the department of fine arts at Hochschule der bildende Kuenste Hamburg. In 2012, he held his personal exhibition "Good Morning Miss Lilli! (support program for rising artists, SeMA)" and took part in diverse group exhibitions including "Band of Feeling (Nanji Exhibition Hall, 2014, SeMA)," "Gift (exhibition for new works, SeMA, 2013)," and "Breakup: Video Art Performance (Korean Film Archive, Media Theater i-Gong, 2013)."

THE 11TH BUSAN INTERNATIONAL VIDEO ART FESTIVAL

제 11회 부산국제 비디오아트 페스티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문화재단

본 전시는 201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의 사업비 지원을 받았습니다.